

건강도시의 건강친화성 평가

김건엽, 고광욱¹⁾, 나백주²⁾, 남해성³⁾, 유원섭⁴⁾, 이무식⁵⁾,
이상원⁶⁾, 정백근⁷⁾, 박재성⁸⁾, 남은우⁹⁾, 이무춘¹⁰⁾, 송예리아¹¹⁾

충남의대 예방의학교실 & 보건바이오산업기술대학원, 고신의대¹⁾,
건양의대²⁾, 충남의대³⁾, 을지의대⁴⁾, 건양의대⁵⁾, 포천중문의대⁶⁾,
경상의대⁷⁾, 고신대⁸⁾,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⁹⁾,
연세대 환경공학부¹⁰⁾, 강원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¹¹⁾

1. 연구문제 및 목적

○ 지금까지 지역의 건강을 평가하기 위해 주로 보건의료 중심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였으며,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과 같은 포괄적인 건강결정요인들을 포함하지 못했음. 그간, 결과지표 중심의 보건지표를 활용하여 지역의 건강수준을 평가하였으며 건강도시의 특성인 노력 및 과정지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음. 이에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고 한 지역의 건강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본 연구는 건강친화성 평가제도의 이론과 실천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건강친화성 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고찰 및 해외동향파악, 국내외 제도 검토,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였음.

- 세계보건기구, 유럽건강도시의 건강친화성 평가제도 및 건강영향평가관련 사례검토

- 기존 국내 건강도시 및 타부서에서의 건강친화성과 관련된 문헌 및 사례고찰

- 건강친화성 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지자체 대상 및 전문가 설문조사
- 지자체 공무원 및 건강도시 전문가, 보건 전문가, 환경보건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내실정에 맞는 건강친화성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3. 연구결과

○ 건강친화성 평가에 대한 정의

“건강친화성평가란 건강도시(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건강결정 요인들을 파악·분석하여 개선시키고자 하는 도시(지역사회)의 각종 활동들과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말함”

○ 건강친화성평가 지표 개발

- 건강친화성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기본 방향은 첫째, 건강도시의 특징을 포함하는 지표이어야 하며 이는 주로 과정중심의 지표이며 기존 건강도시 평가지표에 해당됨. 둘째, WHO 건강도시 프로파일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도시 지표의 틀을 이용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임.

- 전문가 의견조사와 연구자 회의를 통해 건강친화성평가 지표를 2개 분야, 13개 영역으로 결정하였음. 2개분야는 건강도시 기본조건 분야와 건강도시 프로파일 분야이며, 건강도시 기본조건 분야에 5개 영역(정치적 지원, 협력 및 주민참여, 혁신적 접근방법, 인프라 구축, 역량강화), 건강도시 프로파일 분야에 8개 영역(건강수준, 생활습관, 주거생활, 사회경제적 여건, 물리적 환경, 형평성, 물리적 하부구조, 보건복지정책 및 서비스)임.

- 건강친화성평가 지표는 총 4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건강도시 기본조건 분야가 총15개의 지표, 건강도시 프로파일 분야에서는 총 2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건강친화성평가는 건강도시인증제도의 평가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며, 그린시티나 지속가능도시처럼 단독으로 도시의 건강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건강친화성평가 도입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 현재 개발된 평가지표를 적용하면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에 가입되어 있는 도시나 도시인프라가 풍부한 도시가 유리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고 있는 도시의 경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기존의 도시평가(그린시티, 지속가능한도시, 살고싶은 도시 등) 지표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기존 타분야 도시평가 지표를 직접 이용하거나 건강친화적인 관점으로 수정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음.
- 도시의 건강친화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표개발과 적용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학제간 논의와 공무원 및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이 있어야 할 것임.
- 건강친화성평가는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발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지자체에 대해 건강친화성평가의 올바른 취지를 이해시키고, 보건복지부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공동주관하여 평가제도를 개발하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우수한 건강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경쟁 및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
- 평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웹상에 도시의 건강친화성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이 있음.

4. 결론

- 건강친화성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건강의 다양한 결정요인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제시되고, 건강도시에 대한 기본 이념을 제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음. 이는 건강도시인증제와 병행 실시 될 수 있음.